

대학생 학습자의 세계영어발음 교수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조사

박은영*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결과 분석 및 논의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온라인대학교 오프라인대학의 영어교육 환경에서 영어발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 한국 대학생들이 세계영어 발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대학인 사이버대학교와 일반 오프라인 대학교의 영어 수업에서 각각 세계의 다양한 영어발음에 대하여 다루었다. 교수자는 세계영어의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실제적인 자료와 웹사이트를 통하여 세계영어의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학습자들에게는 설문지를 통하여 세계영어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대학생들은 세계영어에 대하여 이전에 경험해 보거나 교육받은 경험이 거의 없으며, 미국/영국 영어 발음을 제외한 세계영어발음 중에는 아프리카/아시아 발음보다는 뉴질랜드/호주 발음을 선호하였다. 세계영어발음 학습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학습자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세계영어발음 학습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주제어 : 영어발음교육, 세계영어, 영어의 다양성

* 감리교신학대학교

1. 서론

최근까지 영어 교육의 주된 목표는 영어 학습자로 하여금 영어 모국어 화자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은 영어 학습자들이 표준영어를 익혀 영어 모국어 화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특히 영어 발음교육에 있어서 미국 영어의 표준 발음으로 간주되는 일반 미국영어(General American English)나 영국 영어의 표준 발음으로 일컬어지는 용인발음(Received Pronunciation)을 영어 학습자들이 습득하여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 추세 속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국제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로서 위상이 확립된 지금, 미국이나 영국영어뿐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나라의 화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서로 다른 모국어 배경을 가진 화자들과 영어로 의사소통 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영어 사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는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모국어 화자뿐만 아니라, 영어 이외의 다양한 언어 문화권 사람들과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영어 발음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조진관, 2003).

하지만 영어발음교육에서 세계영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학습자들의 세계영어발음 교수에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발음교육에 대한 연구논문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세계영어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없었고, 세계영어를 위한 연구논문 역시 최근에 이루어져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실행되어 왔으나 발음교육에 직접 가르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 것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대학의 영어 과목에서 각 각 세계영어 발음을 지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반응 및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대학 뿐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온라인 기반의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에 접목하고 그 반응을 알아보아 온/오프 기반의 대학들에게 추후 교육적 적용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어발음교육에서 세계영어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알게 하며, 세계영어발음을 기존 영어수업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영어발음 과목에서 세계영어발음의 교수방법은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는가?

둘째, 세계영어발음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도 및 반응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영어 발음교육의 선행연구

발음의 교육은 제2언어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소 및 언어학적 기술 모델의 변화에 따라 주요 교육 요소들 중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했다. 교수방법에 따라 발음에 대한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장신재, 1996; Brown, 2007a).

20세기 이전의 문법 번역식 언어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에서는 수업이 제 1언어인 모국어로 많이 진행되고 제2언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복잡한 문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모국어를 제2언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훈련과 연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발음에 대한 관심이 결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인지주의 또는 생득론적 접근법(cognitive/nativist approach)에서는 언어의 규칙에 치중하여 발음을 중시 여기지 않았다. 이 접근법은 언어를 습관 형성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언어능력 하에 있는 규칙지배에 따른 것으로 여겼다. 또한 모국어 화자 수준의 발음은 비현실적인 목표로 여겼으며

따라서 문법구조와 단어 같은 요소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의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이 시작하였고, 1977년에는 말을 하기 전에 많이 들음으로 이해를 먼저 하게한 후 말하기를 습득하도록 하는 전신 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과 1983년도에는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이 탄생하였다. 이 초기의 학습법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게 하고 듣기에 초점을 두어 교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행동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음성체계를 습득하도록 했다. 이 교수법에서는 발음상의 오류가 언어습득과정의 자연스런 현상이며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생기면 오류는 사라진다고 여겼다. 또한 언어를 교육할 때 목표언어인 제2언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과 모국어 번역 없는 귀납적인 문법학습을 강조하였다. 또한 말하기와 듣기를 모두 가르쳤으며 정확한 발음과 문법이 강조되었으므로 발음이 굉장히 중요했다.

1980년대 의사소통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에서는 제2언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고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로 문법구조, 유창성과 정확성의 균형,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과업의 명세화 등이 보다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발음이 완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발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는 발음습득의 정도는 원어민(핵심집단)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발음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발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Brown, 2007a). 이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발음교육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관심의 대상에서 약간 벗어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하에서 발음에 관한 연구 동향은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발음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김민지, 2010; 도주영, 2006). 이들 연구에서 보면 아무리 정확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고 유의미한 상황을 연습한다 할지라도 비원어민 화자의 발음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발음을

사용한다면 청자가 화자의 말을 이해 할 수 없고 잘못된 발음습관에도 익숙해져 상대방의 발음도 전혀 다른 소리로 인식하게 되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한편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해서 발음을 연구하는 예들이 있다. 먼저, 한국어와 영어간의 발음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를 진단하고 이를 교육에 연관시키는 연구들이 있다(박시균, 2004; 안지인, 2004; 이규진, 1992; Kim, 2007; Park, 1998). 또한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영어발음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연구와(Son, 2010; Yun, 2009), 함께 발음을 가르치게 될 주체가 되는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이 정확한 영어발음을 구사하는 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영어발음을 가르쳐야 할 예비교사 및 교사들에게 정확한 발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도 있다(Chung, 2003). 과거에는 발음교육이 보통 자음과 모음의 조음과 최소대립 쌍(minimal pair) 구별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넓게 강세와 억양 같은 단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Brown, 2007b; Celce-Murcia, 2001), 앞서 논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여전히 대부분의 오류분석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에서 보다는 단어 단위에 중점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희경(2010)은 발음 능력을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학습자들이 발음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자유롭게 서술 하도록 하여 보고한 바 있다.

오늘날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음의 교육방법도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먼저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석정은(2007)은 2002년에 출시된 영어학습프로그램 MT Comm (Mytho Technology Communication)이라는 컴퓨터 발음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성 치찰음을 교육하고 교육의 효과를 확인했다. Sung(2008)은 컴퓨터 보조 발음훈련 프로그램인 Dr. Speaking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영어발음 오류와 그 오류에 대한 컴퓨터 보조발음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2주간 훈련

을 통해 조사했다. 박은영(2009)은 중등영어교육에서 인터넷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발음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영어자음과 모음의 발음원리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 비슷하지만 틀리기 쉬운 단어들을 모아 발음연습을 도와주는 Tongue Twist 게임, 학습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하여 읽어주는 Text-to-Speech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학자들의 연구들을 보면 먼저 Hinks(2003)는 음성인식기반 언어학습 프로그램인 Talk to Me를 통해 스웨덴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중년나이의 이민자들에게 발음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Tsubota, Dantuji와 Kawahara(2004)는 일본학습자들의 발음의 이해 정도와 오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영어발음학습 시스템을 개발했다.

2) 세계영어에 대한 연구

세계영어교육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예전에는 세계영어의 개념 및 기본 인식조차 부족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러나 거의 없으며, 세계영어 또는 세계영어발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들로 시작하고 있다.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Choi(2007)의 결과에서는 대학생들은 대체로 영어를 세계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세계어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한국인강사 또는 영어 비모국어 강사보다는 영어 모국어 강사를 선호한다고 하여, 세계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실제 태도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류수련(2010)의 연구에 참여한 20-30대 학습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영어는 미국의 언어라 하였고, 다른 영어보다 미국영어에 대해 월등히 높은 친숙도와 이해도

를 보였다. 홍미영(201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참여자들은 미국영어만 접해본 경우가 72.3%였는데, 이들은 미국영어의 발음을 절대적 기준으로 세우고 다른 영어발음 및 영어화자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인식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어학습자들은 나라마다 특색있는 세계영어의 현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실제로는 미국영어를 선호하고 그와 다른 영어변이형과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다소 이중적 모습이 보인다.

교사인식연구로는 한국인 영어교사 네 명을 대상으로 한 Choe(2007)에서 교사 모두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영어로 미국영어를 선호하였다. 이채희(2013)는 영어교육 대학원생과 중등교원임용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들은 대체로 영어를 세계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Ahn(2014)은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는 다양한 영어변이형보다는 한국영어(Korean English)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이 있었고 선호하는 영어변이형으로는 미국영어를 압도적으로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와 교육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교사들은 ‘인지적 태도(cognitive attitude)’와 ‘행동적 태도(behavioral attitude)’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였다.

심영숙(2015)에서는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식과 태도를 살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교사들은 세계영어의 다양한 발음에 수용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사들은 또한 세계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평가시스템, 사회적 인식, 교육과정과 교재 및 교사의 준비도, 학습량 등으로 세계영어교육의 학교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해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있었던 교사들은 아닌 교사들에 비해 다양한 세계영어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높았다. 이 논문에서는 중등 영어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세계영어에 수용적 태도를 가지며 교육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세계영어발음을 지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학에 각각 적용하여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도 및 반응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에서는 2012년 2학기 S사이버대학의 영어발음과목에서 세계영어발음교육을 도입한다. 총 수강생은 104명으로 대부분 영어학과 전공생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반응은 설문조사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익명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게시판을 사용하다 보니 설문조사에 응한 수강생은 30명이 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대는 그 특성상 다양한 직업군의 학습자들이 있고, 연령도 18-60세로 분포가 넓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대 학습자는 다양한 직업군 중 사무직과 주부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고등학교 졸업생부터 박사학위 소지자까지 다양한 학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수강생들은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영어를 제2언어로 공부하는 학습자들이다(고보애, 천승미, 2015).

오프라인대학으로는 서울에 소재한 K대학의 영어 선택과목 ‘실용영어’ 교과목에서 조사하였는데, 수강생은 27명이나 결석 등으로 설문참여도 수는 23명이다. K대학의 수강생들은 전공이 신학부, 종교철학, 기독교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는 20세에서 25세로 주로 분포한다.

2) 연구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학에서 세계영어 발음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온라인은 사이버대학에서, 오프라인은 서울 소재 K대학에서 발음교육이 이루어졌다. 먼저 사이버대학으로는, 2012년 2학기에 S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에 개설된 ‘영어발음연습’ 과목에 준비하여 시행되었다. 사이버대학

의 강의는 대부분 개설되기 전에 제작되므로, 사전에 교안제작 및 강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미국영어발음을 중심으로 짜인 전체의 교안에서 중간에 쉬어가기 코너를 통하여 세계영어 발음을 소개하도록 하였다. 쉬어가기 코너 중 ‘영국영어’, ‘싱가폴영어’, ‘아프리카영어’ 등 몇 가지의 세계영어발음의 특성을 주차별로 나누어서 소개하였다. K대학에서는 2012년 2학기에 열린 영어 교양선택 ‘실용영어’ 과목에서 세계영어 발음을 도입하였다.

학습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이버대학은 2012년 11월 말부터 강의게시판의 ‘설문게시판’을 이용하여, 오프라인대학은 마지막 수업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부록). 설문지는 5단계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것으로 영국발음 및 세계영어 발음에 대한 학습경험, 선호도, 지도방법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학습자들의 응답은 빈도분석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4. 결과 분석 및 논의

1) 세계영어발음교육 교수 방법

(1) 세계영어발음의 중요성 인식

일반 학습자들에게는 세계영어(World Englishes)라는 용어 및 개념도 익숙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학습자들에게 먼저 세계영어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2) 세계영어발음의 특징 제시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자연적인 환경(natural environment)에서의 습득보다는 교실상황에서의 학습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성인학습자들은 귀납적 방법보다 연역적 방법을 선호하는 편인데, 아이들처럼 듣고 규칙을 도출해 내는 것보다는, 세계영어의 지역별 특징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

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세계영어의 지역별 특징을 명시하되, 지나치게 학문적인 설명보다는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와 함께 주된 특징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인과관계 없이 무조건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역사적, 지형적 특징을 제시하여 연결 짓도록 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영국 식민지의 영향이라든가 지형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중국어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 등을 소개해 주도록 하고, 호주의 경우 영국에서 감옥을 호주에 건립하면서 슬랭이 발달하게 된 것 등을 소개해 줄 수 있다.

(3)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한 발음지도

진정성(authenticity)이 있는 자료야말로 학습자들에게 실제성과 학습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세계영어발음을 학습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행히 유튜브, 구글 등에서 검색을 통해서 지역별 세계영어발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있다. 연구자는 본 수업을 위하여 각종 검색 포털을 통해 지역별 세계영어발음의 자료를 검색함과 동시에, 학습용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4) 웹사이트 소개를 통한 학습자 주도적 학습 유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만들어진 자료들을 학습자들에게 학습자료로 제시 하였던 것이고, 마지막 단계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소개하도록 한다. 학습용으로 세계영어발음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는 찾기 어렵지만,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정리해 둔 것이나 기타 여러 블로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아직은 세계영어에 대한 정립된 것이 없는 상태이나, 현재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점점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학습자들이 수업이 마친 후에도, 또 졸업한 후에도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참조사이트를 안내해 주었다. 사이버대학에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파워포인트로 구성된 기존 교안에 링크를 걸어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하였고, 오프라인대학에서는 노트북 컴퓨터에 빔 프로젝트를 연결하여 보여주었다. <그림 1>은 세계영어에 대한 동영상 자료의 예를 캡처한 것이다.



〈그림 1〉 세계영어에 대한 동영상 자료

2) 세계영어발음지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선호도

영어발음연습 과목에서 세계영어를 소개하고 지도한 후, 학습자들의 세계영어와 관련된 인식, 반응 및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 조사

세계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네 개의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첫 문항인, 미국, 영국 영어를 제외한 세계영어(World Englishes)발음에 대하여 이전에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표 1>과 같은 응답을 보였다.

‘아주 그렇다’를 1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5로 설정하여 평균을 냈을 때 오프라인대학에서는 3.2로 ‘보통이다’ 정도로, 사이버대학에서는 2.7로 이보다는 약간 더 들어본 정도로 볼 수 있다. 두 대학 다 큰 차이는 없는데,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들어보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학습자들의 숫자는 비슷하다.

〈표 1〉 세계영어발음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는지의 여부

| | | 오프라인대학 | 사이버대학 |
|---|-----------|---------|---------|
| ① | 아주 그렇다 | 3 (13%) | 7 (23%) |
| ② | 조금 그렇다 | 6 (26%) | 9 (30%) |
| ③ | 보통이다 | 1 (4%) | 5 (17%) |
| ④ | 별로 그렇지 않다 | 8 (35%) | 3 (10%) |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 5 (22%) | 6 (20%) |
| | 평균 | 3.2 | 2.7 |

미국, 영국 영어를 제외한 세계영어발음에 대하여 이전에 배워본 적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 2>와 같은 응답이 나왔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앞 문항의 평균은 ‘보통’ 가까이 나온 것에 비하여, 배워본 경험 유무의 평균은 3.9, 4로 ‘별로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왔다. 학생들의 편차는 오프라인대학보다 사이버대학이 더 크다. 즉, 오프라인대학은 세계영어발음을 많이 배워본 학생은 0명, 보통도 0명으로 나왔으나, 사이버대학은 비교적 분포가 다양하다. 이는, 직업과 연령, 경험이 다양한 사이버대학생들의 특징이 반영되어 보다 다양한 경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다.

〈표 2〉 세계영어발음을 배워본 적 있는지의 여부

| | | 오프라인대학 | 사이버대학 |
|---|-----------|----------|----------|
| ① | 아주 그렇다 | 0 | 3 (10%) |
| ② | 조금 그렇다 | 6 (26%) | 3 (10%) |
| ③ | 보통이다 | 0 | 2 (7%) |
| ④ | 별로 그렇지 않다 | 6 (26%) | 5 (17%) |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 11 (48%) | 17 (57%) |
| | 평균 | 3.9 | 4 |

〈표 3〉에서 미국, 영국영어 외에 세계영어 발음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대학이 각각 2.3, 2.8로 ‘조금 그렇다’에서 ‘보통이다’ 정도를 보이고 있다. 오프라인대학이 약간 더 필요성을 높게 느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주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에서 절반을 넘는 분포를 보인다.

〈표 3〉 세계영어발음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 | | 오프라인대학 | 사이버대학 |
|---|-----------|---------|----------|
| ① | 아주 그렇다 | 7 (30%) | 5 (17%) |
| ② | 조금 그렇다 | 5 (22%) | 6 (20%) |
| ③ | 보통이다 | 9 (39%) | 10 (33%) |
| ④ | 별로 그렇지 않다 | 1 (4%) | 9 (30%) |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4%) | 0 |
| | 평균 | 2.3 | 2.8 |

미국, 영국발음 외에 다른 나라의 발음을 배우고 싶다면 어느 나라의 발음을 가장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대학 모두 ‘뉴질랜드, 호주권’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표 4〉). 이는 여전히 미국영어와 유사한 영어발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대학에서는 83%에 달하는 선호도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오프라인대학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순으로, 사이버대학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인 오프라인대학의 학습자들은 신학관련 전공 인지와 해외선교 등의 이유로 사이버대학보다는 선호하는 나라의 분포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배우고 싶은 나라 발음

| | | 오프라인대학 | 사이버대학 |
|---|-----------|----------|----------|
| ① | 아시아권 | 3 (13%) | 4 (13%) |
| ② | 아프리카권 | 6 (26%) | 1 (3%) |
| ③ | 뉴질랜드, 호주권 | 12 (52%) | 25 (83%) |
| ④ | 인도 | 2 (9%) | 0 |

(2) 영국영어발음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영국영어 발음에 대해서 이전에 배워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표 5>와 같이 결과가 나타났다. 두 대학 모두 평균은 ‘보통이다’ 정도로 비슷하나, 분포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오프라인대학에서보다 사이버대학에서 더 분포가 다양하게 벌어진 것으로 볼 때(표준편차 4.5>3) 이 역시 사이버대학의 다양한 학습자들의 배경과 경험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영국영어 발음을 배워본 적 있는지의 여부

| | | 오프라인대학 | 사이버대학 |
|---|-----------|----------------|--------------|
| ① | 아주 그렇다 | 1 (4%) | 3 (10%) |
| ② | 조금 그렇다 | 10 (40%) | 9 (30%) |
| ③ | 보통이다 | 2 (9%) | 9 (30%) |
| ④ | 별로 그렇지 않다 | 9 (39%) | 6 (20%) |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4%) | 3 (10%) |
| | 평균 | 2.9 (표준편차 4.5) | 2.9 (표준편차 3) |

영국영어발음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대학 사이에 평균의 차이가 약간 있다(<표 6>). 오프라인대학에서는 ‘조금 그렇다’

에 가까운 1.8인데, 사이버대학에서는 ‘조금 그렇다’에서 ‘보통이다’ 사이로 (2.3) 오프라인대학에서 약간 더 관심을 보였다.

〈표 6〉 영국영어 발음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 | | 오프라인대학 | 사이버대학 |
|---|-----------|----------|---------|
| ① | 아주 그렇다 | 10 (43%) | 9 (30%) |
| ② | 조금 그렇다 | 9 (39%) | 8 (27%) |
| ③ | 보통이다 | 3 (13%) | 8 (27%) |
| ④ | 별로 그렇지 않다 | 1 (4%) | 5 (17%) |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 | 평균 | 1.8 | 2.3 |

(3) 세계영어발음 수업에 대한 반응

세계영어발음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영어발음연습 과목에서 세계영어 발음을 다룬 것은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1.7, 2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으며, ‘아주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를 합하면 전체의 70-80퍼센트에 달한다.

〈표 7〉 세계영어 발음을 다룬 것이 유익했는지의 여부

| | | 오프라인대학 | 사이버대학 |
|---|-----------|----------|----------|
| ① | 아주 그렇다 | 10 (43%) | 9 (30%) |
| ② | 조금 그렇다 | 10 (43%) | 12 (40%) |
| ③ | 보통이다 | 3 (13%) | 7 (23%) |
| ④ | 별로 그렇지 않다 | 0 | 2 (7%) |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 | 평균 | 1.7 | 2 |

세계영어발음에 대하여 실제 예나 사이트 등을 통해 제시한 것은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이 각각 1.5, 2로 역시 대체로 긍정적

이다(표 8). ‘전혀 그렇지 않다’는 0명이며, ‘아주 그렇다’가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다. 오프라인대학이 사이버대학보다 약간 더 유익하다는 부분에서 점수가 높았다.

〈표 8〉 실제 예나 사이트가 유익했는지의 여부

| | | 오프라인대학 | 사이버대학 |
|---|-----------|----------|----------|
| ① | 아주 그렇다 | 15 (65%) | 13 (43%) |
| ② | 조금 그렇다 | 5 (22%) | 7 (23%) |
| ③ | 보통이다 | 2 (9%) | 8 (27%) |
| ④ | 별로 그렇지 않다 | 1 (4%) | 2 (7%) |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 | 평균 | 1.5 | 2 |

마지막으로 세계영어발음을 가르치는 방법이나 영어발음과목에서 다루는 것에 대하여 제안점이 있으면 적도록 하였는데(〈표 9〉), 먼저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한 학생이 9명이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듣고 발음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시험 점수에 반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실제적으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세계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둘 있었다. 그 외 2명은 ‘세계영어발음에 대해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국, 영국 이외 지역의 영어는 흥미와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우선 영, 미의 발음 위주로 배우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표 9〉 오프라인대학 학습자들의 제안사항

| 내용 | 명수 |
|-----------------------|----|
|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 9 |
| 세계영어에 대한 필요성 인정 | 2 |
| 세계영어발음에 대하여 배우고 싶지 않다 | 2 |

사이버대학교의 학습자들의 제안사항들을 정리하면, ‘세계영어발음을 배울 필요가 있고 지금보다 더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라고 12명이 응답하였는데(<표 10>),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국, 영국 발음 외에 가장 많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혹은 헛갈리기 쉬운 세계영어발음 위주로 다루주세요’, ‘아시아권 영어발음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많이 들어주세요’, ‘발음 차이도 있지만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도 크니 함께 배우고 싶어요’ 등의 내용이 있었다. 12명의 응답은 세계영어발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7명은 ‘미국, 영국 발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는데, ‘세계영어발음을 깊이 배울 필요는 없고 소개 정도가 적당할 듯’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4명은 세계영어발음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는데, ‘입이나 목 안의 모습을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더 효과적일 듯’, ‘팝송을 이용한 발음 공부가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은 문장을 여러 발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등의 제안이 있었다.

〈표 10〉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제안사항

| 내용 | 명수 |
|-------------------------------------|----|
| 세계영어발음을 배울 필요가 있고 지금보다 더 심화학습이 필요하다 | 12 |
| 미국, 영국 발음만으로 충분하다 | 7 |
| 세계영어발음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제안 | 4 |

두 대학 학습자들의 제안사항을 정리한다면, 세계영어 발음학습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학습자들의 숫자가 응답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그 수는 사이버대학에서 더 크다. 필요성을 인지하는 학습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직 세계영어발음에 대한 교재 또는 학습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고로,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방법의 제안사항을 내놓기도 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세계영어발음을 지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오프라인대학과 사이버대학에서 각각 실현하여 학습자들의 인식, 반응 및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세계영어발음교육 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세계영어발음의 교육을 위해 먼저 학습자들에게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후에 특징을 실제적인 자료와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시한다. 아직 세계영어발음에 대한 교재 및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교수자의 사전 조사 및 수집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들의 인식도 조사에서 세계영어발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는 평균이 ‘보통이다’에 가깝고, 배워본 경험의 유무는 ‘별로 그렇지 않다’로 나왔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는 ‘조금 그렇다’에서 ‘그렇다’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배우고 싶은 나라의 발음으로는 사이버대학에서는 ‘뉴질랜드, 호주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오프라인대학에서는 ‘뉴질랜드, 호주권’이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여전히 미국영어 중심의 영어발음교육을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오프라인대학 학습자들의 전공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및 아시아권 등에 대한 수요도 보였으나, 일반적인 직장인 위주로 구성된 사이버대학에서는 여전히 영미권과 가까운 발음을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인식도를 알 수 있다.

셋째, 영국영어발음에 대하여 배워본 경험은 평균이 ‘보통이다’였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로, 오프라인대학은 약간 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사이버대학은 이보다 낮았다. 영국영어발음에 대해서는 세계영어발음보다는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세계영어발음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두 대학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예나 사이트가 유익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세계영어발음 수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적도록 하였을 때는, 두 대학 모두 심화학습 및 지속적, 체계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나, 사이버대학에서는 ‘미국, 영국 발음만으로 충분하다’도 적지 않은 의견이 있어, 아직까지 세계영어발음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교수방안에 대해서는 노래를 통한 학습, 음성학 사진 자료, 같은 문장의 여러 발음 듣기 등의 다양한 방안의 제안이 나왔다.

점점 늘어나는 세계영어발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영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영어 강좌에서 세계영어발음을 일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볼 때, 세계영어발음교육 도입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두 대학의 20-30명에 달하는 학습자들을 각각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다른 학습환경에 일반화를 모두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문항도 적어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 외에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영어발음을 지도하는 방안들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영어의 세계화와 지역화, 또한 영어의 본질적 기능이 세계인과의 의사소통임을 고려할 때 세계영어에 대한 수용과 학습은 우리의 영어교육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나, 제반 사회적, 교육적 여건의 부족이 교육도입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심영숙, 2015).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대학의 강좌를 대상으로 세계영어발음을 도입하여 교수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 인식도 및 반응을 살펴 보았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계영어발음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학습자의 인식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깊은 질문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고보애 · 천승미, 「사이버대 학습자의 구어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구절동사 오류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영어교수방안 연구」, 『영어교육연구』 20(1), 159~186면, 2015.
- 김민지,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발음교육의 효과」,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김희경, 「영어발음교육에 대한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인식」, 『새한영어영문학』, 52(4), 241~264면, 2010.
- 도주영, 「초분절 음소 중심의 발음지도가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류수련, 「세계영어에 대한 한국 성인 영어 학습자들의 태도와 이해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박시균,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발음오류원인 분석과 교육방법 모색」, 『언어학』 40, 113~143면, 2004.
- 박은영, 「웹기반 영어 발음지도」, 『교육연구』 45, 165~182면, 2009.
- 석정은, 「컴퓨터 발음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학생 영어발음 학습의 효과성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심영숙, 「세계영어에 대한 중등 영어교사 인식 연구」, 『응용언어학』 31(1), 149~172면, 2015.
- 안지인, 「의사소통중심교수법과 영어발음교육」,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이규진, 「간접현상으로 인한 한국인의 영어발음 오류 가능성에 대한 연구-영어와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대조분석을 통하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2.
- 이채희, 「EIL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장신재, 「2언어학습과 교육: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신아사, 1996.
- 조진관, 「국제어로서의 영어 발음교육,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9(1), 201~222면,

2003.

홍미영, 「다양한 영어 발음을 이용한 듣기 수업이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영어 듣기 이해도 및 언어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Ahn, H. Teachers, attitudes towards Korean English in South Korea, *World Englishes*, 33(2), 2014, pp.195~222.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 Pearson Education, 2007.

———,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3rd ed.). New York : Pearson Education, 2007.

Celce-Murcia, M.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Boston, MA : Heinle & Heinle, 2001.

Choe, H. Korean EFL teachers' perception of English speakers and varietie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4(1), 2007, pp.85~107.

Choi, K. Study on students' attitude towards world Englishes and non-native English teachers. *English Teaching*, 62(4), 2007, pp.47~68.

Chung, Y-J., Intelligible pronunciation of English words by Korean teachers' university student and elementary schools teachers, *Primary English Education*, 9(2), 2003, pp.189~210.

Hinks, R., Speech technologies for pronunciation feedback and evaluation. *ReCALL*, 15(1), 2003, pp.3~20.

Kim, J-E., A phonetic study of Koreans' production of English vowels and their pronunciation pedagog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n Journal*, 15(4), 2007, pp.41~54.

Park, J-K. How to teach English pronunciation for effective communication, *Studies in English Educations*, 3(2), 1998, pp.24~44.

Son, S., Creativity and limitation in Korean Learners' acquisition of English fricative sounds. *The Modern English Society of Korea*, 54(4), 2010, pp.373~391.

Sung, E., The effects of computer-assisted pronunciation training in the production of English coda consonants and consonant cluster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1(3), 2008, pp.46~68.

- Tsubota, Y., Dantuji, M., & Kawahara, T. *An English pronunciation learning system for Japanese students based on diagnosis of critical pronunciation errors*. ReCALL, 16(1), 2004, pp.173~188.
- Yun, Y., English speakers' identification of English high back vowels, *The Modern English Society of Korea*, 54(4), 2009, pp.317~326.



부록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것으로,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연구와 수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다음 문항들에 대하여 읽어보고 1-5로 응답하세요. (1-7번)

- 1) 아주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 미국, 영국 영어를 제외한 세계영어(world Englishes)발음에 대하여 이전에 들어본 적 있다.
2. 미국, 영국 영어를 제외하고 세계영어발음에 대하여 이전에 배워본 적 있다.
3. 영국영어발음에 대하여 이전에 배워본 적 있다.
4. 미국영어 외에 영국영어발음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미국, 영국 영어 외에 세계영어 발음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영어발음연습 과목에서 세계영어 발음을 다룬 것은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7. 영어발음연습 과목에서 세계영어 발음을 실제 예나 사이트 등을 통해 제시한 것은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8. 미국, 영국발음 외에 다른 나라의 발음을 배우고 싶다면 어느 나라의 발음을 가장 선호하나요?
1) 아시아권 2) 아프리카권 3) 뉴질랜드, 호주권 4) 인도
9. 세계영어발음을 가르치는 방법이나 영어발음과목에서 다루는 것에 대하여 제안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Abstract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Preferences for World Englishes

Park, Eun-you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1) how world English pronunciation can be dealt with in Korean English education environment, specifically in on and offline colleges, and (2) how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ive world English pronunciation. For achieving these goals, both in on and offline university, world English pronunciation was introduced in regular English classes. The instructor introduced the notion and necessity of international language, and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world Englishes with authentic material and websites. Written surveys of student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urvey, Korean college students did not have much previous experience in world Englishes study, and they preferred New Zealand/Australian English pronunciation than African/Asian English pronunciation. Though a few of them did not have a motivation for world Englishes study, most students showed positive attitudes and open-mindedness about learning world Englishes pronunciation.

Key Words : Teaching Pronunciation, Variety of English, World Englishes, EnglishPronunciation

<필자소개>

이름 : 박은영

소속 : 감리교신학대학교

전자우편 : 20000grace@daum.net

논문투고일 : 2015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7일

*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